

- 주요 뉴스: 미국 '22년 4/4분기 고용비용 증가율 1년래 최저,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 증가
 - IMF, 금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상향. 연내 경기 저점 통과를 예상
 - 유로존 '22년 4/4분기 성장률, 전기비 0.1%. 경기침체 우려 다소 완화
 - 중국 1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 모두 전월비 상승. 경제활동 재개 등이 영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통화긴축 완화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5%], 달러화 약세[-0.2%], 금리 하락[-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양호한 기업실적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역대 저성장 지속 예상 등으로 0.3%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FOMC를 앞두고 경계감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1%,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택경기 둔화 등이 반영
독일은 작년 12월 소매판매 부진 등으로 3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232.6원, +0.7원) 0.2% 상승, 한국 CDS 보합

		1/31일	1/30일	전일대비			1/31일	1/3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76.6	4,017.8	1.46%	국채 금리 10y	미국	3.51%	3.54%	-3bp
	유럽	453.21	454.40	-0.26%		독일	2.29%	2.32%	-3bp
	중국	3,255.7	3,269.3	-0.42%		영국	3.33%	3.34%	-0bp
	일본	27,327	27,433	-0.39%	CDS 5y	한국	41bp	41bp	0bp
	한국	2,425.1	2,450.5	-1.04%		중국	54bp	52bp	2bp
환율	달러지수	102.10	102.28	-0.18%	위험 지표	EMBI+	-	371	-
	유로화	1.0864	1.0851	0.12%		VIX	19.40	19.94	-2.71%
	엔화	130.10	130.39	0.22%		WTI유	78.87	77.90	1.25%
	위안화	6.7553	6.7523	-0.04%	원자재	구리	422.3	420.2	0.50%
	원화	1,231.9	1,227.4	-0.37%		금	1,928.3	1,923.2	0.2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22년 4/4분기 고용비용 증가율, 1년래 최저. 통화긴축 완화 기대 증가

- 작년 4/4분기 고용비용지수(ECI)는 전기비 1.0% 올라 3/4분기(1.2%) 및 예상치(1.1%) 하회. 다만 연간 상승률은 전기비 높은 수준(5.0%→5.1%). 통상적으로 ECI는 일자리의 구성 및 질적 변화 등을 포함하여 노동시장과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지표로 인식
- ECI의 상승세 둔화는 임금 상승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연결. 특히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연준이 시장의 기대대로 0.25%p의 금리인상에 나서고, 향후에는 통화긴축 기조도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
- 또한 작년 11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의 연간 상승률도 전월비 큰 폭 하락(8.7%→6.7%)하며 물가상승 압력 둔화 기대에 일조. 이번 결과는 모기지 금리의 하락 등에 기인. 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역시 전월 대비 하락(109.0→107.1). 다만 향후 12개월 인플레이션 기대는 상승(6.6%→6.8%)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MF, 금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상향. 연내 경기 저점 통과 등을 기대

- 금년 글로벌 성장률이 2.9%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여 이전(2.7%) 대비 높은 전망치를 제시. 예상 밖으로 견조한 미국과 유럽의 수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등이 이번 조정에 기여. 다만 내년의 경우 이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3.2%→3.1%)
- 지역별 기준으로도 미국(1.0%→1.4%), 유로존(0.5%→0.7%), 중국(4.4%→5.2%), 일본(1.8%→0.9%) 등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금년 성장률 전망이 상향. 한편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면서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과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완화 등도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
- IMF의 피에르-올리비에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침체 위험이 다소 진정되고 있고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제어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 다만 이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며 중국의 경제 성장 정체 가능성, 라우 전쟁 격화, 신흥국의 과도한 부채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

■ Moody's, 금년 미국 기업의 채무불이행 비율은 증가할 전망

- 작년 2%를 나타냈던 미국 기업의 채무불이행 비율이 금년에 6%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 또한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해당 비율은 17.7%까지 올라갈 소지. 금리상승과 러-우 전쟁 지속, 중국의 경기둔화 등이 향후 채무불이행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

■ 유로존 '22년 4/4분기 성장률, 전기비 0.1%. 경기침체 우려 다소 완화

- 작년 4/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0.1%로 3/4분기(0.3%) 대비 저조했지만, 예상(-0.1%)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역성장을 회피. 예상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와 정부지출 확대 등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완충시킨 것으로 평가.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역대 경제성장률이 상당 기간 저조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ECB 설문조사, 국내 은행들은 기업대출에 소극적. 금리상승과 경기불안을 반영

- 작년 4/4분기 기업대출 관련 심사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진행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26%로 '11년 이후 최고 수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산업 혹은 기업의 여건도 악화되고 있어 은행들이 신용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

■ 중국 1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 모두 전월비 상승. 경제활동 재개 등이 영향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는 모두 전월 대비 올랐고(각각 47.0→50.1, 41.6→54.4), 이번 결과는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등에 기인. 부문별로는 국내 수주와 소비 등이 증가한 반면 수출이 부진
- 1월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춘절 연휴 영향을 고려한다면 2월에는 1월 수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Hang Seng Bank의 Dan Wang)
- 한편 중국 리커창 총리는 경제 및 금융안정을 위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FOMC, 1월 ISM 제조업 PMI 및 ADP 민간고용, '22년 12월 JOLTS 구인건수
-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속보치), 중국 1월 차이신 제조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매파적 통화정책 정당성, 서비스 임금 상승세 둔화 등으로 약화 - 블룸버그

(Federal Reserve Might Need a New Excuse to Stay Hawkish)

- 연준은 통화긴축의 주요 근거로 주택 외 서비스 임금을 거론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임금상승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 한편 '22년 4/4분기 서비스부문 임금상승률은 연간 4.2%를 기록하여 '17~'19년 평균(2.8%)을 상회했지만 최근 하락세 지속
- 서비스 임금의 근원물가지수 기여도는 0.5%p 이하로 추정되어 인플레이션 통제 관련 심각한 장애물은 아니지만 확실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서비스 임금 상승 억제가 필요 (Morgan Stanley). 그러나 서비스 임금상승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고려한다면 연준이 그동안 밝힌 것처럼 연말까지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명분이 필요

■ 유럽의 경기침체 회피, 낙관론 속에 위험요소도 상존 - The New York Times

(Europe's Economy Edges Higher, Heading Off Forecasts of Recession)

- 유로존 경제는 '22년 4/4분기 전기비 0.1% 성장률을 기록했고, IMF는 '23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이는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정부 지원 등에 의한 결과로 역대 최대 리스크가 점차 해소되고 있기 때문(Pictet AM의 Frederik Ducrozet)
- 그러나 유로존 경제에는 긍정적 요소와 리스크가 혼재. 독일과 영국의 경기상황은 부진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국별로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이는 금리인상 재개 및 이에 따른 가계 구매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

■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위험자산 가격 상승 기대를 유발 - Financial Times

(What China's reopening means for markets)

-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이후 광범위한 경기회복 기대가 고조. 중국 상하이선전(CSI) 300 지수가 최근 20% 이상 상승해 기술적 강세장에 진입한 가운데, 주식 이외에 여러 자산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 기대가 형성
-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따른 △금속 및 원유 수요 증가 기대 △부동산 개발 기업 채권에 대한 관심 고조 재현 △아시아 통화 및 중국 관련 주식 강세의 기대도 확산. 반면 돼지고기의 경우 재개방 이후에도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
- 다만,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던 중국 수출은 향후 미국·유럽 등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부진이 예상. 아울러 중국 2월 경제지표들의 개선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로 나타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Mizuho)

■ 미국인의 경제 인식,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 - The New York Times

(Will Americans Even Notice an Improving Economy?)

- 미국 실질 성장률은 바이든 정권 시기에 6.7% 성장했고 작년에는 일자리가 450만개 증가. 최근 6개월 인플레이션은 연율 2%를 밑도는 등 개선 징후가 매우 분명
- 그러나 AP-NORC 공공문제연구센터의 조사에서, 미국인 응답자의 75%는 경제 상황을 '좋지 않다(poor)'고 평가했고 25%만이 '좋다(good)'고 판단. 한편 대다수 미국인들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긍정적으로 진단. 즉, 평균적으로 자신들은 비교적 잘하고 있으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쁜 일이 있어나고 있는 것으로 인식
- 이러한 현상은 언론의 경제 보도가 갖는 부정적 편향성에 기인. 미시건대 조사에 의하면 45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22년에도 사람들은 긍정적 소식보다 부정적 소식을 많이 들었다고 응답. 향후 일시적인 경기둔화를 거쳐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24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재현될 소지

■ 미국 경제, 제약적 통화정책과 장기 성장을 위한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이 요구 - WSJ

(Paul Volcker's Recipe for Prospe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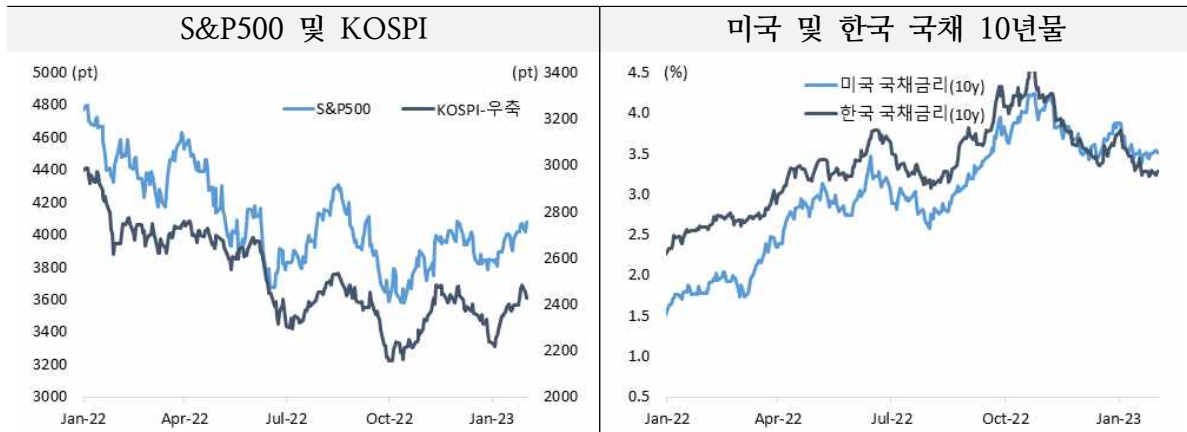
■ 미국 주가 및 채권수익률의 동일 방향 움직임, 과도한 물가하락 기대 등에 기인 - WSJ

(For Markets, Good News Is Good News Again)

■ 중국의 태양광 패널 수출 통제, 미국의 관련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 - WSJ

(New China Rule Threatens to Disrupt U.S. Solar Ambition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